

배포 일시	2022. 9. 14.(수)		
담당 부서	기획조정실	책임자	과 장 정송이 (044-201-3634)
	청년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김무극 (044-201-3638)
보도일시	2022년 9월 15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9. 14.(수) 16:00 이후 보도 가능		

국토교통 정책, 청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

- 국토부 첫 청년참여기구 '제1기 청년정책위원회 발대식' 개최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9월 14일 제1기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회(구 청년자문단)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한 발대식을 개최하였다.
 -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, 청년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토부가 최초로 구성한 청년 소통채널이다.
 -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청년정책위원회 모집에 총 250명이 지원하였으며,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경력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 50명이 최종 선발되었다.
- 이번 제1기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위원회 발대식은 국토부 최초의 청년참여기구의 출범을 기념하여 분과별* 활동계획 발표, 미니강연, 장관과의 대화 등 단원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었다.
 - * 정책위원단의 자체논의를 거쳐 8개 분과로 구성(①주거, ②주거복지, ③도심교통, ④광역교통, ⑤균형발전(S/W), ⑥균형발전(H/W), ⑦모빌리티, ⑧항공)
 - 먼저, 단원들이 사전 논의를 통해 직접 결정한 정책연구과제*에 대한 선정 사유와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발표하였다.
 - * (예) 주거(청년맞춤형 주거교육 활성화 방안), 항공(항공분야 청년취업난 해소방안) 등
 - 다음으로 미니강연 순서에서 윤학열 광역교통분과 단원은 5년간 국토교통부 청년기자단 등 국토교통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체험한 경험과 소감을 동료 단원들과 공유하고,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.

- 이어진 장관과의 대화 시간에서 청년들은 그간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 평소 느껴온 인식과 국토부에 바라는 점 등을 원 장관에게 가감없이 전달 하였으며, 원 장관은 청년들이 제기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,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소통 기회를 가질 것을 약속하였다.
 - 특히 주거 관련 분과를 중심으로, 청년층 주거지원 강화방안 마련 시 실제 청년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,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다양한 채널로 청년들과 적극 소통하고,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토록 하여 수요에 기반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.
- 한편, 발대식에는 청년 온라인패널*약 50명도 온라인(Zoom)을 통해 참석하여 장관과의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등 행사에 열기를 더하였다.
- * 국토교통 정책에 대한 설문·의견조회 등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패널로서, 공개 모집(6.29~7.13)을 통해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 300여명 선발
- 청년정책위원단은 앞으로 1년의 임기 동안 미래과제 발굴, 자문, 모니터링 등 정책 입안·추진·평가 전 단계에서 적극 참여하게 된다.
- ‘청년 브랜드 정책’을 제안하기 위해 자율적인 정책 연구 및 현장 체험을 통해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나 기존정책들의 개선할 점을 발굴하고,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각종 간담회 및 정책모니터링·평가 등에도 참여할 예정이다.
- 이날 발대식에서 원 장관은 “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청년 소통채널을 중심으로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할 뿐만 아니라 청년의 의견이 정책에 실제 반영되도록 적극 지원하여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” 이라면서,
- “청년정책위원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이 국토교통 분야에서 우리나라 청년 들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주기를 기대”한다고 밝혔다.